

홍준표 “공항보다 첨단산업 유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산을 방문하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맹정호 “이 무슨 망발이냐” 발끈

19일, 서산방문 당원간담회 가져
맹 시장 “충남 민심은 서산공항”
홍 후보 “서산공항 재검토할 것”

서산을 방문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산은) 공항보다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해 지역사회 분위기를 과약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캠프 충남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후 아산, 홍성을 거쳐 오후 5시께 서산에 도착 “앞으로 지방 국내선 공항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10년 내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시대가 온다”며 “공항이라고 하면 국내선이 아닌, 미주와 유럽 노선을 직접 갈 수 있는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인천공항으로, 호남권은 무안국제공항으로,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신공항으로 가면 된다”며 “충청권과 대구·경북은 청주공항을

이용할지, 대구·경북신공항을 이용할지 집권 후 시뮬레이션을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충남에는 공항이 필요 없고 청주공항 또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홍 후보는 이에 앞서 충남도당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지방 국내선 공항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맹정호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맹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의원님! 이 무슨 망발입니까?”라며 “비행기를 타러 서산에서 대구까지 가라고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충남과 서산이 대구의 핫바지입니까?”라며 지역 정서를 자극한 뒤 “대통령 꿈도 꾸지 마세요. (차라리) 충남을 대한민국에서 지우세요! 그 전에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맹 시장은 “충남의 민심은 서산공항”이라며 “서산공항에 대해 차라리 침묵하세요. 이렇게 또 째소리를 할 줄이야”라고도 했다.

이에 홍 후보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지방공항 무용론을 말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많은 항의를 받았다”며 “참모들과 의논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충남발전을 위해 반드시 서산공항이 필요하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서산에 줄 선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당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대전 인근에 5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유망한 업종의 기업을 유치, 충남은 물론 세종·대전권 지역 젊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성일중 국회의원은 당내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경제통”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함께 일할 사람이다. 이 약속이 서산·태안에 주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 아니냐”고도 했다.

홍 후보는 끝으로 “이재명 후보와 싸우면서 도덕성 논쟁을 안 할 수 없다.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이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당 경선”이라며 “당원동지들께서 남은 기간 동지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병렬 기자

한서대 LINC+사업단, 성과확산 페스티벌

오는 28일, 태안캠퍼스에서 개막식
11월 4일까지 성과물 전시 등 다양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LINC+(링크플러스)사업단은 오는 28일 태안캠퍼스에서 ‘2021 한서대학교 LINC+ 성과확산 페스티벌’개막식을 열고, 다음달 4일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서대와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개막식과 함께 산학협력 항공기술교육센터 준공식, 충청권 산학협력협의회, 취업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함기선 총장과 김현성 LINC+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페스티벌을 기원하고 산학협력 항공기술교육센터 준공식을 갖는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충청권산학협력협의회가 항공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는 취업박람회와 함께 세스 이노베이션 어워드 작품전시, 링크플러스 주요작품 전시, 링크플러스 창업동아리 우수작 전시, 항공·드론 우수작 전시, 신기술분야 디자인융합 공유 성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다음달 2일 취업박람회 개막식은 한서대 항공·해양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지민석 교수) 입주기업인 ㈜헤즈홀딩스와 역외기업인 클레온, 클로버스튜디오, 비피엠 등 3개 업체가 한서혁신상을 수상한다.

김현성 링크플러스 사업단장은 “LINC+사업은 지역과 기업, 그리고 대학의 합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페스티벌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지난 5년간의 우수한 성과를 지역사회와 협력·확산·공유하고 학생과 기업의 매칭을 통한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서대는 ‘항공·공항, 디자인융합 특성화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을 통해 지역협력센터(RCC), 기업협력센터(ICC), 교육지원센터(ECC)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의 창조적인 선순환 산학협력을 구축해 발전시키고 있다.

허현 기자

서산시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 발족

대표에 최일용 의원 선출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이 15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첫 회의를 갖고 발족했다.

가춘순, 안효돈, 유부근, 이경화, 이연희, 최일용 의원이 참여한 서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은 서산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유사 및 중복 조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최일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선출하고 연구 범위와 방법, 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 전문가 교육, 워크숍 개최, 타 시군의회 우수사례 비교·분석 등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4개월간 서산시의 513개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변화된 대내외적 행정환경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자치법규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시의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513개, 규칙 110개 등 모두 693개에 달한다.

이병렬 기자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예찬」의 작가

우보 민태원 학술제



2021. 10. 23. (토) 오후 1시 50분 |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주최·주관 | 우보 민태원기념사업회

후원 | 충청남도 | 서산시 | 충청남도의회 | 서산시의회

논문 발표

- 1 민태원 연구의 선 자리와 갈 길
김종희 (문학평론가, 전 경희대학교 교수)
- 2 민태원의 「청춘예찬」에 나타난 청년정신 고찰
신익선 (문학평론가)
- 3 언론인과 문인의 짧은 생애 민태원
정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 4 이야기 전달자의 가치와 작가의 정체성 - 민태원論
최수웅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패널 토론

좌장 |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토론자 |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

김덕진 (충청투데이 기자)

편세환 (서산문화원 원장)

한용상 (한국예총 서산지회장)

팔봉면 보육시설 보유 '0' 개 영유아 27명, 인근마을로 원정

창간 16주년 특별 기획
2. '돌봄육아'의 돌봄 공백

서산 서부지역인 팔봉면, 가로림만을 품고 있는 이곳에는 지난 8월말 기준 27명의 영유아가 살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 어린이집도 지역아동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곳의 아이들은 주로 인근 성연면의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운산면과 부석면 상황도 비슷하다. 이들 지역 역시 영유아가 각각 55명, 59명이 거주하지만 어린이집만 1곳이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서산지역 '돌봄 공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서산은 읍면동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 격차가 커 영유아의 경우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보육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영유아 인구가 2배 이상 감소하는 도농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육아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대도시의 경우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서산시는 이제 공사가 진행될 뿐이다. 이처럼 서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공동체의 '돌봄 공백'은 개인, 특히 엄마인 여성에게 '돌봄육아'를 강요하고 이는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의 '돌봄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2012년 무상보육, 2013년 누리과정 등이 시행되면서 보육기관 이용 및 공급 시설 규모가 과거와 비교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초저출산 현상으로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온전히 아이를 믿고 맡

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부모의 근무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나 조부모 등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 조성돼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할매(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와 같은 신조어는 이러한 공동체의 돌봄 부재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기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서산사회 전체가 '공동체 육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결국 그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아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보육 사각지대' 발생 위험성이 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육에 있어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가정에 전가된 '돌봄'의 책임을 서산시가 맡아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같은 인식 확대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이 시행되고 서산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 모델 수립에 나섰지만 공동체 돌봄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서산시의 경우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간 편차가 큰 만큼 서산시를 주축으로 각 읍면동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시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읍면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아동 수
대산읍	8	1	1	377
인지면	4	1	0	225
부석면	1	0	1	59
팔봉면	0	0	1	27
지곡면	10	1	0	271
성연면	18	0	0	1,872
음암면	7	3	0	198
운산면	1	0	1	55
해미면	3	1	0	102
고북면	2	1	0	174
부춘동	15	1	0	832
동문1동	20	1	0	845
동문2동	4	1	0	216
수석동	11	2	0	643
석남동	30	2	0	2,058
계	134	15	4	7,954

서산소방서, 불시 긴급통제단 가동훈련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5일 서산종합운동장에서 불시 긴급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은 출동체계·재난 상황 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출동대원과 지원기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동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긴급구조통제단원, 현장 출동대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대형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 신속한 지휘통제 및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요원별 담당 임무 숙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용관 재난대응과장은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으로 실제 재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출동 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유사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재난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허현 기자

“시민들이 황토 뿌리고 맨발로 다졌다”

지난 16일 황토 100포 뿌리고 다져
맹정호 시장 비롯한 시민 등 50여명

서산시가 16일 읍내동에 위치한 부춘산 황토길에서 시민들이 직접 황토를 뿌리고 맨발로 다지는 행사를 열었다.

학생수영장 인근 황토쉼터에서 열렸으며,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시의장, 김원균 시산림조합장, 충남맨발학교 회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부춘산 등산로 내 서산학생수영장 인근부터 서광사 인근까지 650m를 조성하고 올해 대산목사거리까지 연장해 총 922m 길이의 황토길을 조성했다.

이날 시민들이 직접 황토 100포를 뿌리고 맨발로 다질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부춘산 황토길을 알리고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연장 조성한 약 270m 구간을 함께 이야기하며 걷기도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숲 치유가



지난 16일 부춘산 황토길에서 열린 '맨발 황토 다지기' 행사 모습

있는 건강 산책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부춘산 황토길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강과 치유가 있는 길”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대

표 힐링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산시 산림조합, 충남맨발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부춘산 황토길을 관리, 홍보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내 가정, 내 점포 안전 스스로 점검해요”

서산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홍보물 및 자율점검표 등 배부

서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앞 1호 광장에서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진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을 위한 안전문화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 맹정호 서산시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서산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40여 명은 '내 가정 내 점포의 안전 스스로 점검해요'라는 현수막을 펼쳐두고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과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맹정호 시장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지난 13일 시청 앞 1호광장에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문화 캠페인 모습

부주의가 대형사고의 불씨가 된다”며 “자율점검을 생활화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 신고 등 적극적 시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주실)는 지난 13일 제조업 사업장 대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최근 지역 내 산재 사망사

고 원인인 작업방법불량, 안전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신호수 미배치, 보호구 미착용 등에 사례와 3대 안전조치에 대한 행사법조치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킴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율안전 진단방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해 강조했다.

7가지 핵심 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

김주실 서산출장소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경영의 일부로 기업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서산시 “공공 와이파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서산시가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보안접속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관내 터미널, 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155곳에 공공와이파이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방형 와이파이에는 클릭 한 번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보안이 취약하므로 보안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피해 등의 방지해야 한다.

반면 보안형 와이파이에는 최초 1회의 암호화 인증으로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공공와이파이 구간에서 개방형은 'Public WiFi Free', 보안형은 'Public WiFi Secure'를 선택하고 접속 시 ID와 비밀번호(PW)는 각각 'wifi'

를 입력하면 된다. 단, 보안형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ID, PW 입력 후 ▲EAP방식-PEAP ▲2단계 인증-설정안함 ▲CA인증서-인증안함을 선택해야 한다. 아이폰은 ▲radius 인증서-신뢰만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산시 정보통신과 ☎660-3337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은 “보안접속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피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상이했던 공공와이파이명을 'Public WiFi Secure'로 일원화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병렬 기자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하세요”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응급·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할 수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위치와 상태 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안전 대책으로 미리 등록된 개인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조치와 병원 이송을 돕는 서비스이다. 또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안심콜 홈페이지(www.u119.nfa.go.kr)에 주소와 전화번호, 주 진료기관, 보호자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하면 되고 별도 비용은 없다. 허현 기자

서산시의회, 한복 입고 임시회 진행 ‘눈길’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제266회 임시회에 전 의원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14일~21일 제266회 임시회 시정질문 · 24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가 ‘2012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1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 전 의원이 한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연희 의장은 자색 저고리와 연회색 치마 차림으로 임시회를 주재했다. 12명의 의원들도 모두 한복을 입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이석봉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전통 한복을 입어 뜻을 더했다. 이연희 의장은 “중국이 한복을 자국 소수민족의 문화라며 말도 안 되는 중주권을 주장하며 역지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한복은 아름답고 멋스러운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복(hanbok)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는 등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시의회는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의 한복 사랑은 비단 이번 한복문화주간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유부근 의원 대표발의로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각종 중요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참석하는 등 남다른 한복 사랑을 실천해 왔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한복 입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기타 2건 등 모두 24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병렬 기자
1times@naver.com

이연희 의장 “최초 여성제관으로 참여해 영광”

안전추모제 아헌관으로 헌작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이 16일 “조선 최고의 화가 현동자 안전 선생의 추모제에서 서산지역 최초의 여성 제관으로 참석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이날 지곡면 안전기념관에서 열린 ‘2021 안전추모제’에 아헌관으로 참여해 봉행했다. 여성이 제관을 맡은 것은 안전추모제를 포함해 서산 지역 제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이 시의회 설명이다.

헌관은 제사를 지낼 때 술잔을 대표로 올리는 제관을 뜻하는데, 그 순서에 따라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나뉜다.

이날 안전추모제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초헌관, 이연희 의장이 아헌관, 강문수 안전추모제 운영위원장이 종헌관을 맡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제관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기에 이 의장의 이번 아헌관 참여는 ‘금녀의 벽’을 허문 지역 문화계의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연희 의장이 아헌관으로 헌작하고 있다.

이연희 의장은 “여성 헌관은 서산시민의 높은 양성평등 의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켜온 관습을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감히 내려놓으신 안전기념사업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안전선생 선양사업을 비롯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어요”



읍내42동 태양연립 주변에 설치한 화분.

읍내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마을 곳곳 걸이형화분 설치

읍내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위원장 김인태)가 마을 곳곳에 걸이형 화분을 설치하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주민협의체는 마을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선보이고자 올해 주민 공모사업의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

회원 20여 명은 지난 18일부터 읍내42동 태양연립 주변을 비롯한 마을 곳곳에 국화를 식재한 걸이형 화분 50여 개를 설치했다.

부춘초등학교 주변에는 안전펜스 등 구조물을 활용한 걸이형 화분을 설치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활기찬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국화가 하나씩 놓이며 골목이 화사해지고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주민협의체 회원들은 앞으로도 마을 내 공터나 유휴지에 화단이나 꽃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태 위원장은 “거리 곳곳에 놓인 꽃을 보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안을 얻길 바란다”며 “꽃내음 가득한 계절 꽃을 주기적으로 심어 훈훈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내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클린데이’ 운영,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 텃밭 가꾸기, 주거공간 개선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역부=박영화 기자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용도별유류가격체계도입 건의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 가격체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및 용도별 유류가격체계 도입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정부는 1998년 면세유 일몰기한제를 도입한 후 여덟 차례나 조특법을 개정해가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불안정하게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용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이나 경영 안정을 넘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비롯한 농어업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농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병렬 기자

맹정호 시장, 산물벼 매입장 방문 농민들 격려



맹정호 시장이 지난 15일 산물벼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맹정호 시장이 지난 15일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산물벼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물벼 생산 농민들을 격려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정을 펼쳤다.

서산시는 지난 5일부터 지역 RPC 및 DSC 5곳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를 수매하고 있다. 올해 매입 물량

은 11월 30일까지 산물벼 53750포 2150톤 건조벼는 11월부터 읍면동 지정장소에서 90023포 등 총 3,600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맹정호 시장은 “땀 흘려 농사지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수매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산림조합은 숲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 산주 및 임업인 조합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 산주 및 산림경영인 면세유 공급
- 산림조합 상호금융을 통해 감정가의 70%까지 대출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소요액 최고 100% 이내 대출 가능
- 내 산 뭘하면 좋을까?
내 산을 어떻게 가꿀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산림을 경영하려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 산림경영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산림소득지원사업, 임업후계자, 임업경영체 등 필요한
임업정보를 '유튜브'에서 알려 드립니다.

대표전화 041) 665-0244

예금 | 적금 | 정책자금 취급

벌채 대행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서산시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맹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 기업환경개선 부문 우수기관
서산시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받았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

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 상이다.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공공행정 선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부문별 34개 자치단체만 수상했다. 시는 중앙 부처 등과 규제 개선 협의로 특구계획 변경 등을 이루고 국내 최대의 자동차 직선주행 시험로 건설 계획 승인을 받아냈다.
부석면 천수만 일원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에 국제 기준에 맞는 4.75Km의 직선 주행시험로를 조성 중이며, 국내 기업 자동차 수출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동차 직선 주행 시험로 건설 추진으로 자동차 수출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t1times@naver.com

서산시, 숨은 독립운동가 542명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14명 최종 서훈대상 선별

서산시가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에 총력을 쏟은 결과 큰 결실을 거뒀다.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서산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독립유공자 542명이 발굴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기존 서훈을 받은 일제강점기 당시 행정구역 상 서산출신 독립운동가 194명에 대비해 약 3배의 수치로 획기적인 성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그 중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214명에 대한 서훈 등록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용역은 수형인명부, 폐기인명부, 범죄인명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인터뷰를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료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고회에 따르면 만세·계몽 운동, 군자금 모집, 의병참가, 징용거부, 국제보상운

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운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박두표 선생은 홍주의병을 이끌었던 민중식 의병장의 부대에서 운량관으로 활약하다 유형 10년형을 받았다. 태두섭 선생은 동학의 한 갈래인 청림교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5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문희 선생은 여성 독립운동가로 만주에서 한국청년당의 무장 공격에 참여하다 징역 5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앞으로 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학술 보고서를 제작하고 214명의 독립유공자의 인적사항, 활동사항, 일제강점기 당시 자료 등을 담은 서훈 신청서를 작성, 내달 국가보훈처에 서훈 등록을 추진하는 등 최종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역의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돼 기쁘다"며 "이들의 공적을 찾아 열을 가리고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1400여명에 5000여만 원 감면

서산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감면으로 1400여명에게 약 5천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 생활등급 10~12등급인 저소득층 7가구만 감면해온 것을 비교하면 큰 개선이다.
시는 지난 6~9월 4개월 간 관내 국가

보훈대상가구 총 1800여 가구 중 주소가 정상 등록된 약 1,400여 가구에 총 5천만 원을 감면했다. 앞으로도 감면혜택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신규 감면 신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대산·지곡·성연·음암에 태양광 480개, 지열 79개 설치 지원

서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모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 사업비 46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지역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설비를 지원해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 2월부터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음암면 지역에 태양광(335Kw) 480개소, 지열(1383Kw) 79개소 등 총 556개소에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설치비 90%를 지원하게 되며 주

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3Kw 설치 시 1가구당 연 6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의 재정적 혜택과 에너지 복지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온실가스감축 등 친환경에너지 선순환과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서산시는 지난 15일 예천 1·2단지 주공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 강사의 강의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강의와 현장 사례 전달을 통해 주민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 분쟁예방 및 관리비 절감 등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주민은 "아파트로 찾

아와 알찬 내용과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 감사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올바른 역할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공감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영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이 아파트 관리 전반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민학교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효과

8개월 동안 520건 계도조치 등 민원 줄고 인력 부족현상 개선

서산시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특화된 효과를 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8개월간 감시단 운영 결과 약 520여 건을 계도조치 및 행정 처분해 시민들의 민원이 약 30% 이상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환경감시단은 올해 3월 총 6명을 선발했으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감시 활동을 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공사장, 축사, 하천 등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 계도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위중한 상황일 경우 시에 인계해 처분토록 하고 있다.
감시단은 공사차량 도로 오염, 먼지 및 심한 소음이 나는 현장, 심한 악취 발생 공장 및 축사 등을 중점 점검해 쾌적한 환경 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고질적 환경법규 위반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던 사업장들의 민원이 눈에 띄게 줄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어드는 등 단속공무원의 인력 부족 현상 역시 크게 개선됐다.
한 감시단원은 "첫 활동 시 관리자들의 눈초리에 주눅도 들었지만 지속적인 점검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감시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장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감시단 덕분에 대기질 개선은 물론 민원 역시 주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청정한 서산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에 서산 관광지 벽화 그린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해미IC 구간 방음벽에 그려질 해미국제성지, 서산해미읍성, 간월암 모습.

서산시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해미IC 구간 방음벽에 서산 대표 관광지인 해미국제성지와 해미읍성, 간월암을 벽화로 채워 서산관광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성일중 국회의원의 제안과 지원을 토대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해미IC 구간 방음벽 2곳에 해미국제성지와 해미읍성, 간월암을 벽화로 꾸민다. 벽화는 10월 말 착수하여 11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미국제성지는 올해 3월 교황청이 선포한 국내 유일 단일 성지이며, 서산해미읍성과 간월암은 서산을 대표하는 9가지 관광지인 서산9경 중 각 1경과 3경에 해당한다. 해미국제성지는 유명 성인이 있거

나 특별한 기적이 있던 곳은 아니지만 무명 순교자의 신앙의 모범과 희생을 인정 받은 종교·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대표 읍성이자 전국 최대 규모 성지(城池)로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곳이다. 간월암은 고요한 바다 위의 낙조가 유명한 곳으로 아름답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닷길이 열리면 섬, 닫히면 물이 되는 신비로운 곳이다.
맹정호 시장은 "시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통해 고속도로의 삭막함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기회가 됐다"며 "특히, 시 주요 관광지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지역 상권, 오랜만에 '복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날 주점엔 늦은 시간까지 복적 자영업자들 "손님 늘어나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지난 18일부터 시작모임 가능 인원이 백신접종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늘어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된 가운데 서산지역 상권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복적였다.

거리두기 완화 첫 날인 지난 18일 밤 주점과 식당 등이 밀집해 있는 호수공원 인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거리두기 완화 전 오후 10시가 되면 식당, 주점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귀가를 서두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특히 기존 거리두기 조치와 가장 다른

모습은 6~7인 테이블이 쉽게 보였다. 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해 한 동안 모이지 못했던 지인들과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 호수공원 인근뿐 아니라 서부상가에도 사람들이 복적였다.

시민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모(32)씨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과 소규모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백신도 맞았고 영업시간도 12시까지로 늘어나 간만에 모여서 술 한 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동문동 한성필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27)씨도 "오늘처럼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가게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아직 코로나가 걱정은 되

지만 백신접종 완료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던 자영업자들도 이번 거리두기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호수공원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0)씨는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들도 많고 식사를 하려고 들어오는 손님도 많다"며 "점차 손님들이 늘어서 코로나 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읍내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44)씨도 "아직 거리두기 완화 첫날이라 12시까지 영업하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 손님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번 완화조치가 자영업자들한테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손님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지난 15일 한서대 2021 지역협력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서대 제공

한서대, 지역협력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마케팅지원단, 디자인개발지원단, 봉사공헌지원단 활동 기지개

한서대학교의 지역협력 기여·공헌 프로그램인 '2021 지역협력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15일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이영신 교학부총장, 박창해 인재개발본부장, 멘토 교수, 서산시와 태안군 관계자,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원 선발된 학생 서포터즈는 30명으로 마케팅지원단, 디자인개발지원단, 봉사공헌지원단으로 지역의 관광 콘텐츠 개발, 소상공인 제품 홍보물 디자인 지원, 지역 행사를 위한 SNS 마케팅 등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서산시자

원봉사센터와의 협업으로 소외계층과 약자,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 공헌도 추진한다.

이영신 교학부총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서산태안의 환경문제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학생 서포터즈의 역할이 기대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을 마친 후에는 지역에서 미래를 찾는 최광운 도시재생전문가 특강과 충남사회혁신센터의 트럭에서 열린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시연에 참가했다.

허현 기자

대산항 TOC부두 순찰차량 안전지원제

SK이노베이션 상생기금 지원 항만순찰용 EVZ 전기차 구입

새롭사회적협동조합(대표 이원돈)은 지난 12일 대산항 TOC부두에서 항만 순찰용으로 구입해 배치된 전기차량(EVZ 경차)의 무사고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안전지원제를 지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순찰차량은 장갑순 서산시의원이 SK이노베이션에 협조를 요청해 지원 받은 상생기금을 활용해 구입한 차량으로 대산항 TOC부두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의 발이 되어 달리게 됐다.

대산항 TOC부두에는 2012년 1월 1일 특수경비원이 처음 배치된 이후 그동안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로 정유시설에서 불어오는 오염된 대기와 강한 비바람으로 보안순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안전지원제 개최 모습. 사진=새롭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장갑순 의원은 새롭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직접 부두를 방문해 순찰환경을 확인한 후 SK이노베이션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실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상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원돈 대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순찰차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장갑순 서산시의원님과 후원 기관에 감사드립니다"며 "차량을 잘 활용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해 온 무사고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 노인자살·학대 예방 캠페인

서산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우중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소중한 우리 노인자살·노인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200여명의 어르신을 선 모집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

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시간 대별로 10명씩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자살, '나'부터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봐요", "노인학대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실시한 캠페인은 노인 학대유형, 노인 학대정보, 노

인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반려식물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중재 센터장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는 절박한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끈을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센터 이용을 당부했다.

허현 기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우현)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지구위원회(위원장 정인승)는 지난 13일 서산고에 이어 15일 서산중학교에서 등교 맞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불안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정인승 위원장은 "어린 시절 좋은 기억

으로 함께한 친구가 평생 가는 더 없는 귀한 재산이 되더라"며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등교하는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폭력근절 실천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자'는 슬로건 아래 평소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지하는 지역민간단체와 서산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캠페인이 되었다.

허현 기자

제1회 서산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비대면 개최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센터장 김진석)은 지난 16일 '제1회 서산시청소년e스포츠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고 밝혔다.

제4차 서산시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기획된 이번 대회는 9시부터 24시까지 참여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리그오브레전드'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총 24팀 112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사전 예선을 거쳐 최종 6팀 26명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이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치열한 대결 끝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F5line(부춘초등학교 안재오 외 3명)'팀이, 리그오브레전드는 '대가카든(서산공업고등학교 이태경 외 4명)'팀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허현 기자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충남도민의 친밀한 이웃,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고충 해결과 입법·정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충남에 소통과 공감의 하모니를 열어갑니다.

편하게 전화 예약하고 방문·상담하세요

천안(1)	041-544-0008	논산	041-734-0064
천안(2)	041-566-3702	계룡	042-840-5719
천안(3)	041-574-0007	당진	041-358-3250
공주	041-855-2242	금산	041-751-5555
보령	041-936-5388	부여	041-835-3330
아산(1)	041-547-5927	서천	041-952-1650
아산(2)	041-546-1101	청양	041-943-0613
서산	041-665-1235	예산	041-333-9606

※ 홍성·태안은 상담소 설치 준비중입니다.

council.chungnam.go.kr

※ 각 지역별 상담소의 위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지역민원상담소-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공공의 이익”

기획특집 - 대세는 사회적경제
4.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

<글 쓰는 순서>

- [1] 서산, 왜 사회적경제인가?
- [2]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 [3] 서산 사회적경제, 어디까지 왔나?
- [4] 우리 문제는 우리가...지역 연대

다르지만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이윤 창출과 함께 사회공헌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0년 이후 부처별로 마련된 근거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성장해 왔다. 각자 개념과 목적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끼리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사람과 노동 중심의 수익배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공통분모로 인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차이



지난 15일 서산타임즈를 방문한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원돈 회장과 김환성 사무국장, 이정희 간사가 서산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허현 기자

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개념과 활동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이 문제 해결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합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델이다.

주식회사가 투자자 소유의 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인 경제

공동체다. 따라서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익 또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아닌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하는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새롬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운영 성과를 나타냈다. 조합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줄어들고,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입도 늘어났다는 평가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보다 경제위기에 강하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생산활동을 하는 ‘사회공헌형’ 기업인 것이다.

독립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이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7가지 기준을 갖출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안건로 소제 ‘아이사랑식판드림’은 어린이 교육기관의 식판을 세척·소독·살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문화가정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장위녀 아이사랑식판드림 대표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퍼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을 설립하게 됐다”며 “현재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우리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

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란 타지역과 구분되는 지리적 경계를 가지면서도 같은 이해관계와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공동체를 뜻한다.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지역 내 자원은 인적자원을 비롯한 제품, 행사 등 유·무형 자원이 포함된다.

부석면 소제 옛향기 마을방앗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100% 국산 들깨와 참깨를 시중 소비자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여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지역 농가 소득 창출과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공동체성과 공공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통식품품질인증, 서산프레인증, 6차산업 사업자인증 및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마을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나가고 있다.

김정희 옛향기 마을방앗간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 공헌하는 느낌이 들어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며 “시골에 와서 보니 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이 시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병렬 기자

공연 통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독려

연극 ‘무한한 꿈, 서산으로’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기여

서산시가 지난 15일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창작연극 ‘무한한 꿈, 서산으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번화로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다양한 서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소개는 물론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지역사회환원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전달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공연으로 그동안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 우선구매 방법 및 구매처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와 정착을 이끌었다.

특히, 시가 정부사무위원평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3년 연속 탁월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으며 전국 유일한 창작연극 공연으로 더 유명하



서산시가 창작연극 ‘무한한 꿈, 서산으로’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와 정착을 이끌어냈다. 사진=서산시 제공

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적극 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충남도 빠르미, ‘벼 3모작 시대’ 열었다

부여 시설하우스에서 토마토·빠르미 수확 이어 오이 수확



대한민국 최초 벼 빠르미 시험재배 후 식재한 3모작 오이를 최근 수확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국내 쌀 품종 중 재배 기간이 가장 짧은 ‘충남 빠르미’를 활용해 대한민국 최초 ‘벼 3모작 시대’를 열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부여 한 시설하우스 농가가 기술원의 빠르미 시험재배 후 식재한 오이를 최근 수확하고 있다. 이 농가는 지난 5월까지 토마토를 재배한 뒤, 같은 달 25일 빠르미를 이앙해 84일 만인 8월 17일 수확을 마쳤다. 올 한 해 동안 토마토와 벼에 이어 오이까지 수확하며 ‘시설하우스 벼 3모작’을 완성한 것이다.

부여 시설하우스는 대체로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토마토를 키운 후 6~9월 멜론을 재배하거나, 1~5월 수박, 6~9월 멜론, 10~12월 오이를 키우며 2~3모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설작물 3모작은 토양 내 비료·농약 등 염류 집적을 유발, 연작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부여 시설하우스 농가도 지난해 토마토 후 곧바로 멜론을 재배했지만, 염류 집적에 따른 피해로 작물 대부분을 수확하지 못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지속적인 비료·농약 사용은 토양에 염류를 집적시켜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토양 내 염류 집적 해결 방안으로는 담수 제염과 객토, 벼 등 흡비작물 재배, 표토 제거, 미생물제제 처리 등이 있다. 이 중 벼 재배를 통한 염류 제거는 효과가 85% 가량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벼 재배는 휴경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에서는 벼를 재배하지 않고 물만 채워 놓거나, 벼를 심더라도 후속 작물 재배를 앞두고 대부분 갈아엎는다. 빠르미는 70일 안팎이면 수확이 가능한 만큼, 짧은 휴경 기간을 활용해 염류 집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벼 수확까지 가능하다.

빠르미를 개발한 도 농업기술원 윤여태 박사는 “시설하우스 염류 집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작물들 사이 벼 재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긴 생육 기간 때문에 벼 대신 작물을 연속 재배하며 땅을 휴식시키고 있다”며 “이는 수량과 상품성을 떨어뜨리며 동일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도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이어 “부여 시설하우스에서 현재 수확 중인 오이는 수량이 좋고 상품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농가 만족도도 매우 높다”며 “시설작물 사이 빠르미 재배가 토양 염류집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빠르미는 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2기작·노지 2모작·시설하우스 3모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노동력·농자재·수자원 절감 △기후변화 시대 식량 위기 대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병렬 기자

서산농협, 취약농가에 ‘행복도시락’ 전달

농협서산시지부(지부장 이성규)와 서산농협(조합장 이상윤)이 19일 서산 관내 취약농가 120여 가구에 ‘건강한 식사를 위한 행복도시락’을 지원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충남세종지역의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농협서산시지부, 서산농협 임직원들과 농가주부모임 서산시연합회(회장 지순희) 회원 등이 동태포전과 장조림, 김치 등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했다.

이상윤 서산농협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순희 농가주부모임 서산시연합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고령농업인에 도시락을 전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이 지속적으로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해가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성일종 “서산을 문화예술의 성지로 만들자”

16일, 안전추모제 초헌관 참여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서산을 문화예술의 성지로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산문화재단(이사장 맹정호)과 안전기념사업회(회장 신용식)에 따르면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지곡면 소재 안전기념관에서 열린 ‘2021 안전추모제’에 초헌관으로 참석했다. 아헌관은 이연희 시의회 의장, 종헌관은 강문수 안전추모제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추모제가 끝난 후 성 의원은 “위대한 안전선생의 상상력과 예술혼은 세계적인 음악그룹 BTS로 이어졌다”며 “안전선생을 잘 모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서산을 문화예술의 성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용식 안전기념사업회장은 추모사에서 “안전선생은 몽유도원도를 그린 세계적인 화가로 그 예술혼을 기리는 안전추모제는 매우 가치 있는 의식행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안전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산문화재단 제공

대표이사, 장승재 충남도의원, 임재관·장갑순·조동식·안효돈·최기정 서산시의원, 안무원 순흥안씨서산총회 고문, 조한구 서일중고 이사장, 김선수 지곡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허현 기자**

중고제 명인 심상건의 가야금 부활 알린다

김영희·이은우 교류 연주 오는 27일 서산시문화회관

사단법인 중고제관소리보존회 산하 중고제가무악단 ‘심’의 첫 기획독주회가 오는 27일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충남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김영희 가야금 독주회 ‘중고제 심상건 가야금과 장단’은 김영희 선생과 이은우 선생의 교류 연주 형태로 진행된다.

심상건 선생은 1889년에 출생하여 7세에 부친을 잃고, 당시 우리 서산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작은아버지 심정순에 의해 길러졌으며, 가야금과 가야금병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계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

이번 공연은 1958년 녹음된 심상건 가야금 산조를 재현하며, 심상건 가야금 풍류(염불, 타령)와 함께,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비틀즈와 가야금이 만났을 때(25현 가야금 앙상블)를 선보인다.

가야금 연주자 김영희 선생은 청주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전통예술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했다. 숙명가야금연주단 단원을 거쳐 현재는 중고제가무악단 ‘심’에서 기악분과장을 맡고 있다.

장단을 담당할 이은우 선생은 목원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음악교육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고제 마지막 명창 심화영 선생에게 직접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사사하였으며, 심화영중고제관소리보존회장을 거쳐 지금은 중고제 가무악단 ‘심’에서 성악분과장을 맡고 있다.

김경호 중고제관소리보존회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서산지역의 중고제에서 판소리, 승무 외에도 가야금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영희 선생의 가야금 독주회는 11월 10일 서울에 있는 아트홀 가얏고을에서도 열린 예정이다. **허현 기자**

윤석중 논문·평론·산문집 출판기념회 개최

문인협회 서산지부 임시총회 신임 회장에 최병부 씨 선출

한국문인협회 서산지지부는 지난 15일 부춘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6회 윤석중 문화제 세계적인 동요 시인 윤석중 논문·평론·산문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경과보고, 지부장 인사, 김옥수 도의원, 편세환 문화위원장, 이영하 윤석중 문학나눔회장의 축사, 헌정식, 고향의 봄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중 논문·평론·산문집은 제1장 논문 및 평론, 제2장 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1장에는 김용희 아동문학평론가(윤석중의 동요문학과 시 의식), 노경수 동화작가(윤석중 작품에 나타난 향수의 공간 연구), 김재근 아동문학평론가, 노원호 시인, 박덕규 소설가, 신현덕 아동문학가, 김수복 단국대교수 등 7명의 논문과 평론이 수록됐다. 제2장에는 정두리 새싹희 이사



지난 15일 부춘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윤석중 논문·평론·산문집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김낙중 음압면 발전추진위원장, 이영하 수필가, 오영미 시인, 편세환 시인 등 14명의 산문이 실려 있다. 이 책자는 전국 대학 도서관 450여 곳과 지역 대표 도서관 35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허현 기자**

서산 어린이도서관, ‘공룡은 내 친구’ 성료



서산문화복지센터(센터장 김진석) 어린이도서관은 지난 14일 미취학 어린이 6~7세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공룡은 내 친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안면도 주라기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체험교실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30여점의 화석을 제공 받아 어린이들이 직접 공룡 화석을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

으며, 퍼즐 도구를 통해 각자의 공룡을 만들어보며 상상력을 펼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진석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호산록 한여현 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권오태씨 선출 조규선·편세환 고문 추대

조선 전기시대 서산지역의 사회상을 기록한 호산록의 저자 한여현 선생 기념사업회가 본격 출범했다.

한여현 선생 기념사업회는 지난 19일 서산문화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권오태씨를 선출했다. 또 이사 5명을 선임하고 조규선 서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와 편세환 서산문화위원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기념사업회는 한여현 선생을 높이 기리고 그의 뜻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여현 선생이 쓴 ‘호산록’에는 안전의 고향이 서산 지곡이란 것과 ‘거북차’가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기록이 있어 집중 조명을 받으며 고증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호산록 기록에 의해 안전이 서산 출신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서산에서는 매년 안전추모제가 열리고 안전 기념관이 설립될 만큼 서산지역의 역사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또한 호산록은 조선 전기와 중기시대



호산록의 저자 한여현 선생 기념사업회는 지난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권오태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사진=서산문화원 제공

의 서산지역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되었으며 한여현 선생이 부친 한경춘 선생과 대를 이어 완성한 사찬 읍지로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현전하는 단 하나뿐인 가장 오래되고 상세히 기록된 역사지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전국에서도 사찬 읍지로서는 두 번째로 역사가 매우 깊은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되고 있다.

권오태 회장은 “한여현 선생께서 저술한 호산록은 오늘날 우리 후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고 준엄하다고

본다”며 “지역의 역사문화는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계승 발전되는 것과 당시 공경사회의 가치를 진정으로 추구했다는 점은 후대에게 큰 귀감과 교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사업회에는 호산록 원본과 필사본을 소장한 한여현 선생 후손인 한상기 씨가 명예이사로, 지역 사학자와 각계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호산록은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허현 기자**

서산진로체험지원센터, 비대면 진로박람회 개최

10월 25일~11월 5일까지

서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및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2021 서산시 비대면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로박람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대면 박람회가 어렵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진로박람회의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의해 비대면 개최를 결정했다. 이번 박람회는 ‘꿈 찾아! 행복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로직업콘서트 ▶진로직업체험 ▶대학학과홍보(14개 대학 300여학과) ▶기업홍보 ▶4차산업체험 ▶진로진학상담관 등 6개 테마 69개 부스를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예년과 같이 전문 체험관을 운영하되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체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간접체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참여한 지역 직업 체험처는 체험처별 프로그램을 동영상과 1인(개인별) 키트로 개발하고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하여 학교현장에서 동영상과 키트(약3,700개)를 활용해 직접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석천 서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은 “이번 박람회는 2주간에 걸쳐 학교별



로 자율 진행되므로 여유롭고 안전한 체험이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직업체험 및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대학의 학과탐색 및 전문직업인, 전공교수의 진로강연 등 지역사회, 기업, 지역 내 대학이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진로박람회는 인터넷 검색이나 서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041-662-2727)로 전화하면 된다.

허현 기자

양유정 3로에 '읍내43통 소통 공간' 준공

5억원 들여 지상 2층으로 건립 마을회관 및 경로당 역할 전망

서산시 양유정3로 14-1 일원에 지역 문체를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읍내43통 소통 공간'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읍내 43통 소통 공간은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약 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93.54㎡,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번 소통 공간 준공으로 읍내43통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의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각종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는 지난 15일 주민주도로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맹정호 시장, 이연희 시의회 의장,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맹정호 시장은 "소통공간이 주민들이 교류하고 친목을 쌓는 장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지난 15일 읍내43통 소통공간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준공 테이프 자르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넣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태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살기 좋은 발전된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시는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양유정 일원 10만 9000㎡에 4년간 총 133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거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인지면주민자치회, 독거노인에 국화 화분 전달

인지면주민자치회(회장 최진엽)는 지난 13일 회원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관내 독거노인가구에 국화 화분 및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및 추위지는 날씨로 우울감이 높아지는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원들이 화분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없는지 확인했다.

전달된 국화 화분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국화작품 만들기'강사와 수강생들이 재배했으며, 재료비는 주민자치회에서 기부했다.

이경우 인지면장은 "인지면에서는 민



간단체가 주민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인 활약하고 있어 이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부=조성호 기자

석남동 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석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완호·이구후)는 지난 13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사진>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생채, 파리고추 멸치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개인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이구후 공동위원장은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시장을 보고 정성스레 반찬을 준비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완호 석남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여러 제한들로 활동이 위축돼 어려움도 많았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부=김지만 기자

서산국화축제장,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방

국화·국화차 판매, 잡상인 출입통제

서산 국화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화축제장을 개방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북면(면장 성기영)에 따르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과 10월 13일 2차례의 임원 회의를 열어 지난해처럼 축제장 개방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문만 개방하고 입구에서 발열체크, 출입자 확인 등을 실

시하고 잡상인의 축제장 출입은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 판매는 하지 않고 국화꽃과 국화차만 판매하기로 했다. 주차장 문제는 고북초·중학교와 협의해 대비할 계획이다.

지역부=김명순 기자

동문1동 새마을협의회, 고구마 수확 나눔 행사

동문1동(동장 김덕제)은 지난 13일 새마을협의회(회장 최희경, 장미향)가 '고구마 수확 및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고구마 수확 및 나눔 행사에는 새마을회원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500평의 밭에서 고구마 200박스(1박스/10kg)를 수확했다.

수확한 고구마는 경로당과 독거노인 어르신 등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덕제 동문1동장은 "올해 5월에 심은



고구마 모종이 이번 10월에 이렇게 많은 결실로 수확하게 된 것은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해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부=박미경 기자

성연면, 성연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강정 기탁

성연면(면장 김중길)은 19일 성연중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만든 강정 300개를 어르신들에게 전해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사진>

성연중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직접 강정을 만들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김중길 성연면장은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관내 경로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부=노교람 기자

동문1동, 익명의 주민 4년째 라면 50박스 기탁

동문1동(동장 김덕제)은 19일 익명의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에게 전해달라며 라면 50박스(1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주민은 지난 2018년 1월, 어머니가 작고하신 후 미지급 장수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장수수당에 자신이 돈을 보태 라면 50박스를 구입해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4년째 선물을 이어 오고 있다.

동문1동 관계자는 "기탁자가 처음에는 동에서 받은 미지급 장수수당을 어머니



가 주신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 기탁을 시작했다"며, "익명으로 관내 사회배려계층에게 잘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지역부=박미경 기자

서산뉴스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서산 대표 신문 "서산타임즈"
서산타임즈는 서산 시민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한데 모으고 채워 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기사제보 · 광고신청
매주 화요일 기사 마감

평생구독회원 등록
평생구독료 : 700,000원

구독신청
월 7,000원 / 1년 80,000원

전화 : 041-666-0310
팩스 : 041-666-0360
이메일 : 1times@naver.com
홈페이지 : seosantimes.com

충남도, 도내 개발 수소에너지 기술...첫 기술 이전 성사

단국대·4개 기업 계약체결식 핵심기술 4건 기술 이전 계약

충남도 내에서 개발된 수소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이 도내 기업 등에 기술 이전되면서 기업의 수소 분야 전문기업화 등 업종 다각화 여건이 조성됐다.

도에 따르면, 19일 정우산기, 엠프로텍, 에어레인, 에너엔비텍 등 4개 기업은 단국대와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수복 단국대 총장, 황윤하 정우산기 대표, 김성진 엠프로텍 대표, 하성용 에어레인 대표, 이성수 에너엔비텍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계약식은 기술 이전 개요 설명, 계약 체결,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도내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이 개발돼 기술 이전까지 성사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번 계약으로 정우산기 등 4개 기업은 선급금으로 총 18억 원을 단국대에 지불하고 매년 경사 기술 사용료로 기업별 매출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되는 기술은 이창현 단국대

교수가 개발한 수소 관련 핵심소재 기술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에 특화된 기술이다.

정우산기는 △염수전기분해용 분리막 제조기술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및 염수전기분해 분리막 기반 이오노머 추출 기술을, 엠프로텍은 △음이온전도성 과불소계 이오노머 분리막 제조 전주기 기술을 이전 받는다. 에어레인과 에너엔비텍은 △미활용 막-전극어셈블리 핵심 부품 고도화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이 교수는 “기술 이전으로 분리막의 박막화가 가능해졌고 수소 기체의 차단성은 강화해 전기분해 공정 운전 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면서 “고분자 중합체인 이오노머 사용량이 줄어 공정 단가도 대폭 줄이고 수소 생산 시 내구성도 현저히 개선된다”고 말했다.

또 “염수 전기분해용 분리막의 경우 박리가 빈번히 발생해 전력 소모량이 급증했던 기존 제품과 대비해 이전되는 기술은 박리를 원천 차단해 내구성을 높여 전력 소모량 저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알칼라인 수전해 분리막의 경우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제품과 대비해 수소 차단성을 수백 배 개선해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단국대와 4개 기업이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도내 수소산업 역량 강화 의미 크다”고 말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번 계약으로 대학과 기업은 연구사업의 공동 발굴 및 수행, 위탁연구 및 상호기술 교류 활성화, 공동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며, 기술과 관련된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오늘 협약은 도

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게 되는 계기”라며 “수소경제는 우리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래경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이 이 전돼 산업계에서 실증과 사업화를 이뤄내고, 다시 더 높은 선진 기술 연구와 기업의

성장으로 선순환된다면 우리 충남 수소경제의 연구 개발 역량과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고 더욱 강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충남 수소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가지”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충남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 '전국 최고'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 평가' 12개 시도 중 1위

충남도가 추진해 온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 평가'에서 전년 대비 총점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며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 평가는 시도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을 평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차기 고농도 기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과정 및 성과, 단체장 관심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산출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주요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평가 결과, 도는 총점 93점(1위)으로 전년 평가 83점(3위) 대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도는 이번 평가에서 △인천, 경기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 △국제 교류 협력 강화(중국 장쑤성) △자발적 협약 확대를 통한 사업장 배출 저감 △비상저감조치

이행 결과 홍보를 통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유도 △발전 3사 보유 대기측정망(38개소) 통합 정보 누리집 공개 등의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평가 기간 중 총 5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며, 서울·경기·인천이 4회, 세종이 2회, 경남·광주 등이 1회 시행했다. 가장 많은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날은 올해 3월 30일로 도를 비롯해 부산·전남 등 7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특성 등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추진해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푸른 하늘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병렬 기자

충남도의회 '구도심 도시재생 힘 보탠다'

이계양 의원 대표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 이계양 의원)은 14일 당진시 합덕읍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 약화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전철과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진형 도시재생계획 모델을 만들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자치분권연구소는 11월까지

도농복합형 도시 현황과 문제점, 상생방안,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및 인구유입 방안 등을 연구한다. 또 지난 9월 국토교통부주관 2021년 뉴딜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주민과 함께 다시 만들어가는 again 합덕 1970사업'에도 연구용역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계양 의원은 “타 시도 사례 등을 비교해 도농복합도시의 공동화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농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충남도의회, 지역청년 인구 유출 해결책 고심

정병기 의원 대표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정병기 의원)은 14일 아산 소재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충남 청년지원정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병기(전안3), 김연(전안7), 이공휘(전안4)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 중인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통한 실질적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연

구용역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정병기 의원은 “지금껏 여러 청년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보다 공급자인 관 주도의 정책이 많았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성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최종보고회 이전까지 다양한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충남도의회, 서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경영·업무능력·도덕성 검증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는 지난 15일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특위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만성 저자에 시달리는 의료원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 현안 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 사업과 건강안 전망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의료의 질 향상, 공공보건의료 강화, 경영혁신, 내원객의 불편 최소화 등 시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불친절 논란, 전산 시스템 미흡, 협소한 주차장, 원장 직무성과 저조 등을 지적하고 후보자에게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후보자가 청문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했다”며 “도민을 위한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가 임명되도록 검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이병렬 기자

“전자상거래·대형마트 등 인삼 판로개척 절실”

충남도의회 인삼발전특위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인삼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5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남 인삼산업 현황 및 최근 수삼가격 하락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삼 재배 규모는 2013년을 기점으로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홍삼스틱 등 인삼제품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인삼 소비량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수삼 가격은 한 채(4년근·750g)당 2만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8.5%, 2020년 대비 18% 하락한 수준이다.

특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둔화와 전자상거래 기반의 취약성을 수삼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학교급식 납품 확대 ▷대형마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렬 기자

서산로타리클럽, 우즈벡서 한글백일장 추진

우즈벡 한인회장 일행 서산로타리클럽 방문

서산로타리클럽(회장 김상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글백일장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회장은 최근 서산을 방문한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 일행과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2019년 방문을 마지막으로 2년째 봉사활동을 못 가게 된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가 잦아드는 대로 그동안 논의했던 여러 지원사업 및 봉사활동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곤 회장과 최준호 전 총재, 장광순 전 회장 등 서산로타리클럽 임원과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 일행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창석 회장은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와의 깊은 인연으로 국제로타리 3620지구 소속 서산로타리클럽과 서산국화로타리클럽, 서산보라매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지난 2016년부터 우즈베키



서산로타리클럽은 최근 클럽을 방문한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 일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서산로타리클럽

스탄을 방문해 여러 봉사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서산로타리클럽 회장은 “다슈켄트1 세종학당과 한글백일장을 열어 현지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내년에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이고, 2021년 3월 초 허선행 세종학당장의 우즈벡 체류 30주년 기록집도 출간

된다는 소식이니 코로나19만 잠잠해지면 회원들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허선행 다슈켄트1 세종학당장의 인물기록집 ‘우즈베키스탄 한글교육 30년’을 집필 중인 서산 출신 조철현 작가가 동행해 자신의 전작인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 10년의 기록’을 기증했다. 아리랑요양원(원장 김나영)

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고려인 1세 독거노인들을 위해 2010년 타슈켄트 인근에 세운 복지시설로, 지난 2016년부터 서산로타리클럽 및 서산국화로타리클럽, 서산보라매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매년 이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날 조 작가가 증정한 ‘아리랑요양원 10년사’에는 이들의 봉사활동 내용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허현 기자



훈련을 수료한 전투조종사들이 비행단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0전비 제공

20전비, 최정예 전투조종사 14명 탄생

전환·작전가능훈련 수료식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전비)은 지난 15일 F-15K 전환 및 작전가능과정을 수료한 14명이 최정예 전투조종사로 탄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은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이 일선 전투비행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 기종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훈련은 제157전투비행대에 실시됐으며 수료한 조종사들은 KF-16 항공기 공대공·공대지 작전 등 전투조종사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한 실전적인 전투기량을 연마했다.

이들 14명의 전투조종사는 전투비행대에 배치되어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게 된다.

이날 수료식에서 차영일 대위(진)가 작전사령관상, 서재호 대위(진)는 전투사령관상, 박성훈 대위(진)는 단장상을 받았다.

또 우수 교관으로 선발된 윤상민 소령과 정석우 대위는 각각 작전사령관·공중전투사령관 표창을, 우수정비사로 선발된 정찬규 중사는 비행단장 표창을 받았다.

차영일 대위(진)는 “훈련 기간 늘 신경 써서 지도해주신 교관님들, 그리고 안전을 위해 힘써준 정비 요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요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로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투조종사로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임무 수행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허현 기자

서산출신 장세형 부부, 미국 댄스스포츠대회 3관왕

프로페셔널 3개 부문 석권...1개 부문 준우승

서산출신 세계적 댄스스포츠 선수인 장세형-장아델 부부가 미국 내셔널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겸 미국 댄스스포츠 페스티벌에서 대회 역사상 최초로 3관왕에 올랐다.

장씨가 지난 15일 본사 이메일을 통해 보낸 자료에 따르면 이 대회는 세계 댄스스포츠 경기연맹(WDSF) 산하 미국 댄스스포츠 경기연맹(USA DANCE)이 주최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턴 포트 로더데일 호텔에서 개최됐다.

장세형씨와 영국인 아내 장아델씨는 이 대회 프로페셔널 4개 부문에 출전하여, 3개 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1개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미국 내셔널 댄스스포츠 챔피언십 역사상 처음으로 3개 부문의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영광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 커플이 3관왕을 차지한 부문은 미국 내셔널 프로페셔널 아메리칸 스무드(Smooth: 왈츠, 탱고, 폭스트롯, 비엔나 왈츠), 아메리칸 스무드 쇼댄스, 그리고 아메리칸 리듬 쇼댄스 부문이다. 특히 아메리칸 리듬 쇼댄스 부문에서는 고(故) 이영희 한복 디자이너가 직접 후원해준 한복 의상을 입고, 태권도 동작을 가미한 차차차와 볼레로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극찬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리듬(Rhythm: 차차차, 롬바, 스윙, 볼레로, 맘보) 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미국 댄스스포츠 역사상 최우수 선수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들 부부는 미국 국가대표로 오는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세계 댄스스포츠



장세형-장아델 부부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장세형씨 제공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장세형씨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3관왕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막내아들

과 며느리의 성공을 바라시는 아버님(장근복 씨)과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현 기자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맞손’

서산지역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사)한국농업경영인 서산시연합회와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5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맹정호 시장, 박종범 농업경영인회장, 김학수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경옥 봉사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산시가 농업인구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겪는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농업경영인

회는 농가모집, 작업량 조사, 작업장비 제공, 작업비 산정 등을,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 인력배치, 기금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맹정호 시장은 “협약식을 통해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충남 최초로 서산시농촌인력증가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개 농가에 대해 100여 명의 인력을 중개했다.

이병렬 기자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사 겨울철조끼 100벌 전달

한국전력공사 서산지사(지사장 윤규원)는 지난 14일 지곡면을 방문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겨울철 조끼 100벌을 전달했다.

조끼 구입비용은 한전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이웃사랑 등을 위해 조성한 러브펀드로 충당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윤규원 지사장은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겨울용 조끼를 전달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추위 없이 겨울을 잘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지역부=노교량 기자

서산시, 올해 ‘책 읽는 가족’ 선정 인증서 수여

서산시가 지난 14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서산시 책 읽는 가족’ 3가정을 선정해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선정된 가족은 지난해 1년간 책을 가장 많이 읽고 모범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김대용·이지연, 고윤관·김다혜, 홍승욱·유선애 씨 가족이다.

이들 3가족의 총 도서 대출량은 2,006권으로 평균 669권에 달하며, 최대 대출가정은 총 1031권의 도서를 대출해 한 달 평균 86권을 독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1년간 도서 대출권수를 1회당 기존 5권에서 10권까지 대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맹정호 시장이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맹정호 서산시장은 “책 읽는 가족 선정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도 시 전역에 독서 생활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업무협약 체결 모습.

서산타임즈 The Seosantimes

(주) 31977 충남 서산시 고운로 239 고운빌딩 4층
대표전화 (041)666-0310 Fax (041)666-0360 홈페이지 www.seosantimes.com

발행·편집인 이병렬

운영위원회 회장 최정환 고문 심결섭, 강춘식, 김정균

운영위원 김근우, 김태신, 나순의, 류호중, 방산아, 서병선, 서중심, 성두현, 손금남, 유영환, 유임숙, 이상숙, 이광운, 이재숙, 전용자, 정구현, 정윤도, 조규호, 최동순, 최상임, 최원호

구독료 : 한 달 7,000원
2005년 6월 28일 등록번호 충남다-01221·본지는 주간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재류 : 디트니스 업무재류·한반도야기 기입협회·한국ABC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

트집

가기천의 일각일각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잊지 않는 일이 있다. 군청 민원실에 있을 때였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상담과 즉결민원을 처리한다. 인·허가 등 처리 기한이 정해진 민원서류는 접수하여 소관부서에 보낸다. 소관부서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기한을 지켰는지 절차이행에 소홀함은 없는지 검토 후 「민원통제」라는 고무도장을 찍어준다.

어느 날, 식품영업허가 담당 직원이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서류를 들고 왔다. 이유는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에서 0.1㎡가 부족하고, 선반에 면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소면적을 따질 정도라면 얼마나 열세한 업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규모였다. 주방과 출구를 포함한 한 변을 5m라고 볼 때 폭은 불과 2cm가 부족한 것인데 그것이 반려 이유였다. 그 정도라면 자(尺)를 어디에 대고 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사정이었다. 당시에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선반에 면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얼마나 자의적인 판단이고 트집에 가까운 것인가로 보였다. "이런 이유로 반려하느냐?"고 물었지만 "법상 안 된다"는 대답이었다. 손바닥 만 한 음식점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민원인의 고달픈 처지가 떠올랐다. '법상 기준에 의한 처분의 당부'를 따지는 기능이 없는 민원실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결과과정에서 누구라도 짚어보았다면 어찌되었을까하는 아쉬움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다시 신청했는데 허가가 났다. 공직에 있는 동안 거울로 삼았다.

도청으로 가서 처음 맡은 일은 과 서무였다. 출장 직원 여비청구서를 회계과에 보냈다. 얼마 후 담당 직원이 와 보라

고 해서 갔다. 행선지, 거리, 운임, 식비, 숙박비 이런 부분을 연필로 체크해나갔다. 좀 세계 텅기니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문을 알 수 없어 "무엇이 잘못 되었어요?"라고 물으니 "그것도 몰라요?"라며 턱과 눈썹이 올라갔다. 광나는 뺨쪽구두가 밟게 보였다. 오랫동안 여비업무를 담당하여 거리나 단가를 안 보고도 계산하는 직원이라고 했다. 군청에서 갓 전입한 직원을 앞잡아보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전임자에게 물으니 철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군에 있을 때는 실제 타고 다니는 교통편 운임으로 계산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열차, 버스를 환승하는 것으로 하니 계산이 복잡하고 요금은 더 많이 나왔다.

한 번은 과원 전체가 전국행사에 가게 되었다. 스무 장 가까운 여비청구서를 일일이 만드는 것은 비능률이라서 이름 쓰는 곳은 빈 칸으로 둔 채 한 장만 작성하여 복사한 다음 빈 칸을 채워 보내니, '안 된다고 하여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뒤 복잡한 여비계산의 경우를 만들어 보내자, 회계과에서는 처음이라며 논의한 다음 필자의 논리에 승복했다. 그 후 필자가 보내는 서류는 검토 없이 통과했다. 그 때의 일을 경험을 중앙에 출장여비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반영되었다.

서산출신 인사가 회장을 맡은 도 새

마을단체 행사를 하게 되었다.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회계과에 협의하려는데 역지를 부렸다. '참석자 개인별로 작성한 청구서'를 첨부하라는 것이었다. 점심 한 그릇 주는데 수 백 명으로부터 일일이 도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은 번잡할 뿐더러 불필요한 일이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참석자 명단을 붙이겠다고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참석 및 급식확인서'에 과장이 날인하겠다는 제안도 거부되었다.

몇 번 논란 끝에 식권을 주는 것으로 했다. 행사가 끝난 뒤 식권을 모아 가지고 가니 '구겨지지 않은 것, 깨끗한 것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며 트집을 잡았다. 보다 못해 담당직원 눈앞에서 식권을 구기고 사무실 바닥에 비린 다음 책상위에 집어 던졌다.

옆에서 보던 계장이 "뭘데 그래?"하고 정황을 듣더니 "해 줘"라고 하여 끝났다. 참 나쁜 사람으로 낙인(烙印)찍혔다. 지금 가끔 만나고 있다. 그 때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민원인에게 물인정한 공무원의 가슴에 공직윤리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은 갖췄을까? 직원 간에도 꼬투리 잡고 까탈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이 시민이나 민원인에게는 어땠을까? 재량과 상식을 생각하게 했다. 일을 놓고 먼저 '안 되는 이유'부터 찾아내려는 것인지, 트집 잡고 비비꼬는 것을 권한으로 알고 위세부리는 심리는 무엇일까? 조정기능을 망각한 관리자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을까? 문득 그 시절이 떠오른다. 왜 일까?

가기천/수필가 · 전 서산시 부시장 (ka1230@hanmail.net)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기고

김경호
서산소방서장



일교차가 심한 10월~11월엔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심정지 환자에겐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의 응급처치 과정을 통하여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장소로는 가정 이 약 45.3%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통계에서 급성 심정지는 내 가족과 친구, 이웃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며 나 자신이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약 2배정도 상승한다.

이러한 이유로 서산소방서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일반인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실제로 서산시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 생존율은 2019년 8.4%, 2020년 8.8%, 2021년 11.8%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급성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약 4분이라고 한다. 4분 이후 뇌 손상을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영구적인 손상을 받으며 최악의 경우는 사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 순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우선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식이 없으면 119에 신고를 해야한다(다수가 집중된 장소라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신고 후 약 5-10초간 환자의 호흡 유무 확인 후 호흡이 없다면 바로 가슴압박을 시행하도록 한다.

심폐소생술 자세 두 손을 깍지기를 끼고 허리와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몸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가슴 중앙부위를 최소 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속도로 깊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는 우리의 응급처치가 어떠한 유능한 의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자세를 익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자랑스러운 하트세이버가 되도록 하자.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해당 여부

법률가이드

박범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사건요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사례]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임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하였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위 망인을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한 것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작업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데 반해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에 비추어 그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으로는 유족

의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 3. 24. 법률 제 7907호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폐지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의 인상을 통해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며,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1헌바 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개정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바, 원심 및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수술과정, 감염, 간암 등의 발병, 사망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결국 화재진압 중 임은 이 사건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립4로 22, 현제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건강이 제일의 재산

김홍배 칼럼

시인·소설가



어머수는 '건강이 제일의 재산'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 역시 명언 중의 명언이다.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잊고 산다.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다른 사람이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들짝 놀라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된다.

옛그레 L 목사님이 여성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다. 늘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모습을 보아왔던 터라 몹시 놀랐다. 다음 주에 수술 날짜가 잡혔다며 이전에 받았던 곳으로부터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말을 마치 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신앙인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재산이나 명예처럼 관리를 잘해야 유지할 수 있다. 아무리 튼튼한 몸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반면 부실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전에 필자가 모시던 직장 상사 한 분은 위가 약해 늘 약을 가지고 다녔다. 중식은 집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혹 외식을 하더라도 맵거나 짠 음식을 피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건강하게 사셨다. 오히려 젊었을 적보다 위가 튼튼해졌는지 자극성 있는 음식도 곧잘 드셨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나 상식은 어디든지 차고 넘친다.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셈

이다.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만 잘 지킨다면 어느 정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현상에는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쉬울지도 모르겠다. 육체의 건강은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정신적 건강은 사회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타의에 의해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으로 지쳐가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어도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기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럴 때 우린 어떻게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이 속담이

야말로 코로나19에 지쳐가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이라 하겠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양전한 사람은 겁쟁이로 보인다. 활기찬 사람은 까부는 경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실패 중에 성공을 보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길만 보이는 사람도 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출구가 보인다. 나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자. 암 선고를 받고 왜 하필 나냐? 라고 절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왜냐라고 걸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한다는 L 목사님의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유와 평안을 가져다준다. 어떤 불행이라도 감사는 숨어 있다. 그 감사를 찾아내어 걸음으로 드러내게 해야 한다. 모든 걸 다 잃었다 하더라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의 재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있지 않은가? '가장 큰 어리석음은 다른 행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소펜하우어가 말했다. 건강이 무엇보다 제일의 재산이다. 건강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자.

김홍배(시인·소설가)

[알립니다] 자랑스런 서산인상 후보 추천해 주세요

서산타임즈와 미디어서산(주)는 오는 30일까지 '2021 자랑스런 서산인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 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산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서산타임즈 홈페이지(seosantimes.com) 팝업창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서산타임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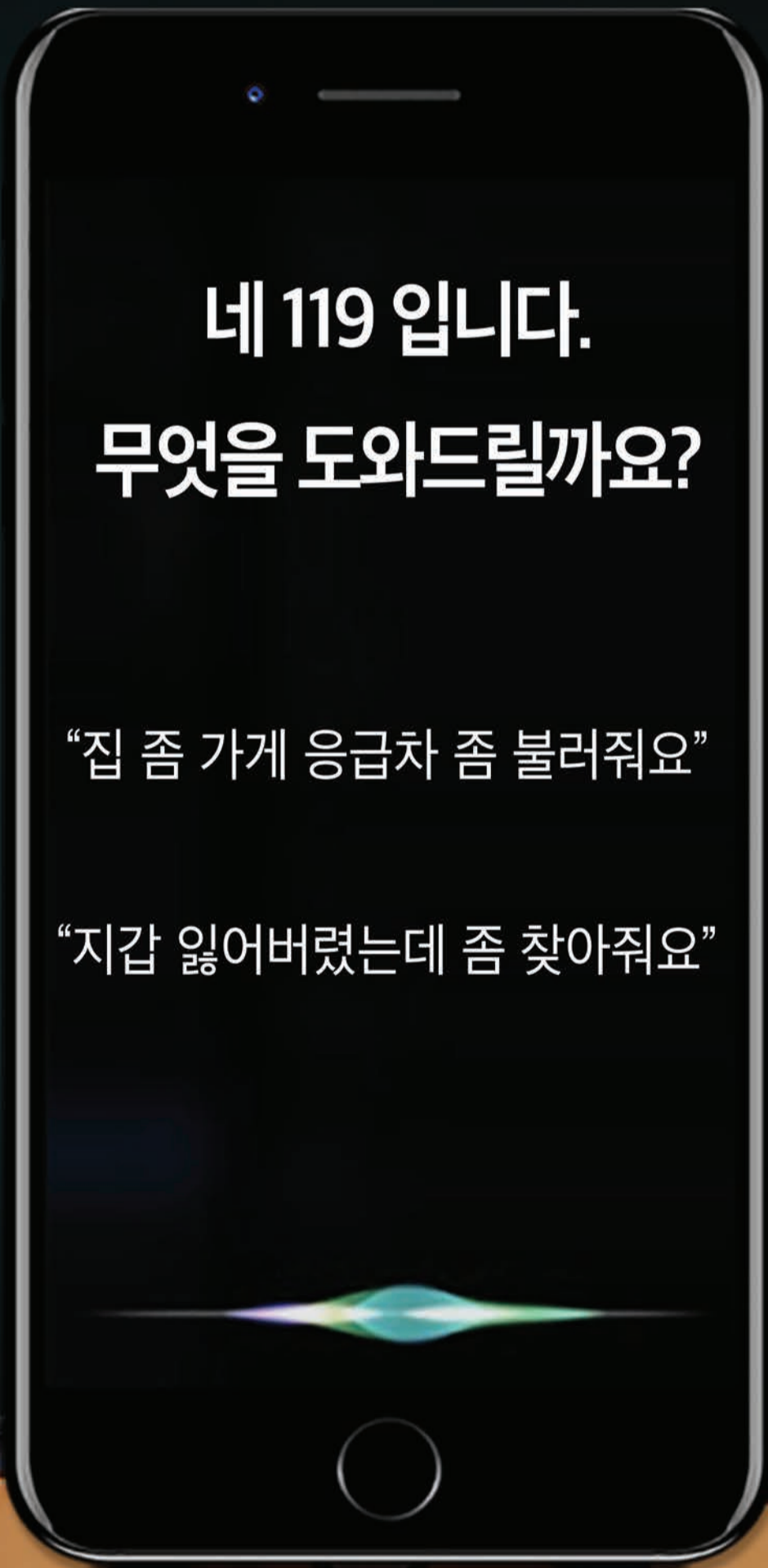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